

植樹節期를 맞는 小考

최동균 / 본회 전무이사

본고는 식수기를 맞아 필자 개인적인 소고일뿐, “산림경영지”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 필 자 -

1. 식목일 그대로가 좋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다시 나무심기에 좋은 절기를 맞이하였다.

최근년 들어 심심치 않게 4월 5일 식목일을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아마도 3월 중하순이면 이미 남부지방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산림청은 남부지방의 경우 2월하순부터 3월 중하순에, 중부이북지방에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북부지방에서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이르기까지도 나무를 심는 적기임으로 어차피 지역별로 조림적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나무심는 기간의 중간에 해당하는 날로 전국민이 동시에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4월 5일 식목일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신라가 삼국통일

의 성업을 완수한 날이기도 하고, 조선 성종이 동대문밖 선농단에서 왕실소유의 밭을 경작한 날이기도 하며, 조선말(1910) 순종이 친경제 거행시 나무를 심은 날로, 1946년 제정이래 금년이 제54회째 되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날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식목일을 4월 5일로 하든지, 3월로 앞당기든지 그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어차피 상징적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국민식수기간으로 정하고 식수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뿐만아니라 매년 4월 5일경에는 대부분 한식(寒食)일과 같이하거나 전후되어 조상의 묘도 찾을겸, 누구나 나무 한두 그루 심기에 좋은 날이라 여겨짐으로 굳이 식목일을 앞당겨야 할 이유 또한 없다고 하는데 공감한다.

2. 조림 30년을 되돌아 본 반성

우리의 지난 30년의 조림성과는 참으로 위대하다. 황폐되었던 60년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실로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 30수년여의 임정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교훈을 주고 있다.

국토조기녹화라는 대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조림모범국가로서의 인정은 물론, UN에서도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잘한 점은 접어두기로 하고 50~60년대와 같은 국토 황폐기야 또 다시 오라마는 임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을 위해서도 지난 30년간 조림기간의 아쉬웠던 점, 시행착오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식수절기를 맞아 감히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무방비 상태에서 목재수입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목재 수요량을 어차피 전적으로 외국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1978년 목재수입자유화가 일찍 개방되었다. 그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무역통상 압력을 그리 심하게 받지 않았을 때련만 선견지명이 있었던가 일찌기 개방되어 오늘날 심한 무역통상 압력시대에도 목재분야는 체질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그당시 좀 더 임정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였다면 목재류 수입관세에 다소의 몇 %의 부과금을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방을 했어야 옳았다. 필자가 듣기에는 그 당시에도 임업계 일각에서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관계당국을 설득시키지 못한 관계로 무방비 상태에서 개방만 한 것으로 듣고 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과 같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짐작이 됨으로 목재수입관세에 부과금을 붙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것이 심히 아쉬운 것이다. 축산분야는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관세에 그 부과금으로 지금 조성된 축산진흥기금이 무려 수조원에 이르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조림 물량에 치중하다보니 시행착오도 범했다.

우리나라 조림이 본격적으로 활발히 실시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1967년에 산림청의 발족과 더불어 가속화되었고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계획이 실시되면서 계획조림은 그도(度)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오늘날 국토조기녹화조림을 흔히 제 1, 2차 치산녹화계획기간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실은 1960년대에도 이미 많은 물량의 조림을 실시하였다. 어쨌든 그당시는 조림기술의 축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시에 많은 물량의 조림량을 소화시키려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셋째, 적지적수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았다.

황폐지 복구조림과 연료림조성 조림

이 우선 급하다 보니 그 수종도 자연히 아카시아,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위주의 조림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황폐지복구에 더 이상의 좋은 조림수종이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만일 또다시 그러한 황폐지가 재현된다면 그 수종을 또다시 심을수 밖에 없는 황폐지복구에 더 이상 좋은 수종을 개발해 내지 못했다.

임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은 왜 처음부터 경제수종을 심지 않고 지금에 와서 다시 수종갱신을 하려는가 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황폐되었던 실상을 까맣게 잊고 산림생태학적 측면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황폐된 표토를 우선 고정시키는데는 1차적 조림수로 1세기가 걸린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일부는 조림물량에 쫓기다 보니 적수적수 판정기술도 부족하거나와 우선은 교통이 좋은 곳부터 마구잡이로 조림을 한 곳이 없지도 않았다.

넷째, 과대한 속성수 조림정책이 실패다.

조기녹화사업을 하려다보니 이태리포플러, 은수원사시등 속성수 조림에 주력을 하였다. 제2차 치산녹화계획에 따르면 2000년대에 가서는 포플러류 목재를 연간 400만 이상을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속성수 조림적지 기초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속성수 조림을 강행하다보니 부

적지에 조림을 하게 된 곳에서 실패를 하게 됨으로서 소기의 목표는 무산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속성수의 묘목생산 보급과정에서 양묘가 용이하다 하여 “마을양묘”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실시케 하였다. 우량개체에서의 조성된 철저한 채수포관리는 접어둔채 아무나무(불량모수)에서나 삽수(插穗)를 채취하였고 조림도 적지가 한정되다 보니 자연 실패되었다. 마을양묘는 자기마을에서 직접 가꾼 묘목으로 조림을 하게 함으로서 애림사상의 고취를 기한다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애림사상이 그것 때문에 고취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다섯째, 침엽수 위주조림으로 유용활엽수(有用闊葉樹)도 활잡목(濶雜木)이라는 신조가 탄생되었다.

당시의 풍토는 소나무 등 침엽수외에 다른 활엽수는 천대를 받았다. 모두 이름하여 활잡목이라 하였다. 벌채적지에 가봐도 소나무만 베어가고 활엽수는 아무리 좋은 활엽수라도 그대로 남겨둔채 침엽수(주로 소나무)만 베어감으로서 조림지 지존작업에 큰 장애물이 되어 벌채업자와의 마찰도 빈번한 적이 있었다. 참나무류 등 유용활엽수를 제거하고 앞으로의 조림 성공여부가 보장되지 않은 잣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만을 선호하여 조림하는 우(愚)를 범한 것이다.

여섯째, 천연하종갱신(天然下種更新) 조림 유도가 부족하였다.

앞에 지적한 바 있듯이 조림기술 측

적이 부족하고 물량위주의 조림이 되다 보니 천연하중갱신작업을 유도했어야 마땅할 곳에 많은 인공조림을 함으로서 예산과 인력 낭비가 된 곳이 많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특히 경북, 강원 일부지방 국유림에서는 조림후 10여년 이상된 조림지를 답사해 보면 인공조림목은 천연치수목에 피압되어 조림을 한곳인지도 의심케 할 정도로 조림목은 피압되어 사라지고, 있는 것도 피압되어 성목(成木)으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임지를 본인은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진정한 임업기술자였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았어야 할 임지이다.

3. 앞으로의 제언

첫째, 조림수종 침·활 비율은 50:50은 무리이다.

국민소득 향상에 의한 목재의 수요가 질적 고급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필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침엽수 위주 조림이 시행착오였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침·활 비율을 50:50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새로운 시행착오를 범할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에서의 유용활엽수라 함은

주로 중부지방에서의 아극상장(亞極盛相)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수리나무류이다. 상수리나무류 조림은 과거에도 조림을 많이 시도해 본 것이다. 표목자체의 특성이 직근성(直根性)이라서 잔뿌리가 거의 없이 산지에서의 활착이 어렵고 파종 직파조림도 해보았으나 그 또한 실패한 수종이다. 그외에 자작나무, 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피나무 등 유용 활엽수도 열거하면 많겠지만 침·활 비율을 50:50으로 보는 것은 우선 달관적으로 보아 무리수인 것 같다.

둘째, 천연림보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침·활 조림비율은 50:50으로 하기 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아극성상 상태로 많이 자라고 있음으로 인공조림보다는 천연림보육으로 육림을 더 많이 해서 활엽수 혼유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최근에 특히 유의할 것은 산림에서 소득이 없다보니 표고골목으로 쓰기위하여 미래목(未來木)으로 가꾸어야 할 대상목도 당장의 소득을 위하여 무차별 벌채를 하고 있다. 이는 산림당국의 철저한 계몽과 규제로 먼 훗날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